

# 시대정신과 복식조형성과의 상관성(제2보) -고딕시대와 모던시대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박 숙 현 · 이 순 덕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동주대학 패션디자인 계열

##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 of Times and Characteristics of Clothing(Part II) -Similarly between Gothic and Modern Period-

Sook-Hyun Park · Soon-Deuk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Sung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Dongju College  
(2000. 10. 25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ra's fashionable silhouette and clothing in Gothic and Modern Period. Theoretical studies about the spirit of tim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about each times were prece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imilarities of spirit of times were 1) emphasis on reason and rationality 2) centralization by christianity in Gothic Period, and modernism theory in Modern Period 3) times of the nobility and the churchman in Gothic, and elite class in Modern era

The similarities of characteristics of clothing were 1) preference of slim body form as the ideal body figure, 2) emphasis on convenience and function for freedom in action, 3) discontinuation of traditional way of clothing attitude, 4) emphasis on straight and simple on the silhouette and design, 5) tendency of eliminating ornaments on clothing.

**Key words:** spirit of times, modernism, characteristics of clothing; 시대정신, 모더니즘, 복식의 특성

### I. 서 론

복식은 인간의 내적인 사고의 표현일 뿐 만 아니라 그 시대의 환경 즉 정치·경제·사회·예술적 현실을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화의 총집합체라 할 수 있다<sup>1)</sup>. 이것은 복식이 한 시대의 사회·문화 의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 당시의 시대

적 배경과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식은 이러한 한 시대의 일반적인 정신적, 도덕적 관념이나 취향, 그리고 문화현상인 시대정신<sup>2)</sup>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조형예술품이다. 본 연구자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르네상스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식과 시대정신에 관한 상관성 연구(제1보)를 하면서 이 두 시대는 공통적으로 그 이전시대인 고딕시

대와 모던시대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반대하면서 나타난 몇몇 현상들이 사회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중심이 되어 귀족과 수도사들에 의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회 생활이 지배되었던 단일 중심체제의 고딕시대와 객관, 보편성을 중시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형태를 제시한 모더니즘 사상을 중심으로 엘리트 계층에 의해 지배되었던 모던 시대에서도 시대정신과 복식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구조와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아 창출된 복식이라는 조형물이 유사한 시대정신 하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상관성을 규명하여 앞으로의 시대정신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패션의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행해졌으며 연구의 시기적 범위로 고딕시대는 13~14세기를 중심으로, 모던시대는 20세기 전반기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복식고찰에 있어서는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잘 표현한 1920년대 복식을 중심으로 모던복식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복식에 관한 고찰 부분에는 복식형태형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사회적 이상체형을 포함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런데 고딕시대 여성인체는 15세기 누드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중세의 육체 천시 사고로 인하여 인체가 예술의 주제로 잘 나타나지 않다가 15세기에 이르러 회화가 부흥하면서 정확하고 사실적인 누드화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sup>4)</sup>. 15세기는 시기적으로는 르네상스로 분류되나 누드화에 나타난 인체는 고딕여성의 이상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sup>5) 6)</sup>.

## II. 고딕시대 복식의 특성과 시대정신

중세 유럽사람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기독교<sup>7)</sup>이다. 오늘날 우리가 국가에 소속되어 출생하는 것과 똑같이 중세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출생했다<sup>8)</sup>.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교회가 가르친

보편원리에 따라 현재의 삶을 영위하였다. 중세는 새로운 관습과 규범, 새로운 관행과 관례를 축적하여 기독교 자체를 원형질로 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였다<sup>9)</sup>. 따라서 중세 말 유럽의 통합을 이루었던 기독교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정신 세계와 현실 생활을 형성하는 시대정신으로 작용하였다. 종교적 사상의 영향으로 고딕시대는 본질적으로 직관 및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중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획일적이며 보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카톨릭 교회의 거대한 세력권에 편입되어 있던 금욕적인 중세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영혼을 둘러싼 덧없는 외피에 불과했던 육체는 예술의 주제이기를 그치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의 육체가 누드란 형식으로 15세기 다시 나타나게 된 원인은 고전 고대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전수하고자 했던 초기 르네상스 학자들에 의해 인간존중의 휴머니즘적 정신이 무르익으면서 벌거벗은 인물들이 회화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5세기 누드화에 나타난 여성인체는 참고문헌에 따라 고딕시대 여성인체로 분류하는 경우<sup>10)</sup>도 있고 르네상스 초기 여성인체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sup>11)</sup>. 이는 15세기가 고딕시대의 잔재들과 초기 르네상스 사상이 복합적으로 융화되어 형성된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누드화에 대한 권위자로 손꼽히는 케네스 클락(Kenneth Clark)은 이 시기 인체형태를 고딕시대 여성인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문헌과 연구에서도 고딕 인체로 규정한 것이 많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누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15세기 회화에 나타난 누드와 16세기 회화에 나타난 성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형을 표현한 누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규명할 수 있다.

15세기 인체는 주로 마른 체형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세기말 시인 Eustache Descham와 Poissy의 시에는 당시 여성의 이상적 아름다움에 관한 묘사부분이 있는데, 그 중 인체형과 관계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길고 가는 팔, 길고 날씬한 몸통, 가느다란 다리, 좁은 허리 등으로 나타나 있다<sup>12)</sup>. Clark도 고딕여체의 특징

중 좁은 어깨, 가는 팔다리, 빈약한 가슴 등을 묘사하고 있다<sup>13)</sup>. 또한 Margaret Scott은 Van der Weiden의 작품 속 인체를 보고 성냥개비 같은 몸—하늘 나라에서 사는데 아주 적합한 축복 받은 자의 가벼움—이라 묘사하고 있다<sup>14)</sup>.

고딕시대는 기독교적인 종교의 영향으로 금욕을 강조하면서 육체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복식 속에 감추어 두었던 인체의 곡선을, 재봉기술의 발달로 밀착된 의복이 출현하면서 서서히 드러내는 시기였다.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복식 유행의 또 다른 요인은 새로운 재단법의 출현에 기인하였다. 입체재단법의 발달로 어깨곡선에 적합하도록 소매를 따로 재단하여 몸판에 붙인 복식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5)</sup>. 또한 상의의 앞길은 사라센 복식에서 도입해 온 단추를 사용하여 몸을 조여 밀착된 의복을 만들 수 있었다<sup>16)</sup>.

고딕시대는 시민이 문화의 기수로서 사회생활에서 부르주와와 함께 문화를 구축해 나갔던 시대로서 이는 당시의 복장에 귀족성 뿐만 아니라 시민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sup>17)</sup>. 종래의 정적인 생활은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이동성과 활동성이 있는 생활형태로 바뀌자 복식도 합리적인 형태를 추구하여 로마네스크 시대의 불리오와 같이 소매가 땅에 끌리는 불합리한 의상형태는 사라지고 꼬뜨와 같은 편리한 원피스 드레스 형태가 나타났다<sup>18)</sup>.

### III. 모던시대 복식의 특성과 시대정신

김옥동<sup>19)</sup>은 그의 저서에서 “모더니즘은 사회·경제적 상황보다는 차라리 이데올로기적 조건에서 그 배경을 찾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정치적 신념체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비롯되는 모든 현상을 지칭하는 좀 더 포괄적인 뜻을 지닌다. 그는 또한 문화현상은 사회 경제적 현상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예술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혁명과 변화를 가져오게 한 이데올로기의 힘은 “시대정신”이나 “세계관”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지적·문화적 풍토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20세기 전반

기 서구 유럽의 삶과 정신세계를 지배한 시대정신은 모더니즘이라는 양식의 영향에 의해서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모더니즘((Modernism)은 제한된 의미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서구 예술분야에 풍미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운동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비평가들이나 이론가들이 모더니즘을 문학이나 예술과 관련된 비평개념으로 처음 논의하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초엽이다<sup>20)</sup>.

모더니즘이란 이성에 기반하여 인간주체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역사를 진보, 발전시킨다는 객관성의 논리<sup>21)</sup>로 20세기 전반기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객관성의 논리에 따라 모던시대는 객관 과학, 보편적 도덕과 법, 자율적 예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로고스 중심사상은 전체성, 보편성, 총체성, 객관성, 통일성 등을 중시하여 20세기 전반기 모던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규범과 체제아래 모든 삶들이 종속되는 사회구조가 이상적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엘리트 계층과 대중을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엘리트 계층이 시대를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다.

20세기초는 모더니즘의 틀을 마련하는 무수한 예술양식이 태동하였고 기계에 의한 산업사회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였다. 패션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술 및 디자인 장르에서 모던이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전통과의 단절 즉 과거의 미학을 부정하는 경향을 말한다. 디자인 역사를 조명해 볼 때 장식과 과거 양식의 혼재 양상을 보이던 19세기의 절충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계 생산 방식에 적합한 장식이 배제된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기능주의적 이론에 입각한 조형물이 대표적인 모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조형물의 변화에 따라 복식 스타일도 이전 시대까지 나타난 여성의 풍만한 인체 곡선과 장식선호 경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조형물의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장식이 배제된 직선적이고 단순한 디자인과 실루엣으로 나타났는데 1920년대 복식 스타일이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sup>23)</sup>. 따라서 모던 복식에 관한 고찰은 기능주의적인 모더니즘의 양식적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된 1920년대

복식을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제 1차 세계대전은 정치·사회에서부터 인간의 삶의 방법 및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꿔놓게 하였다. 전쟁은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외부세계로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존재를 벗어나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활동적인 여성상을 요구했으므로 의상은 물론 헤어스타일등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간편하게 바뀌게 되었다.

세기말부터 진행되어온 남녀평등·참정권 요구 등을 든 여성해방운동의 사상적인 영향과 그 당시 젊은이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밀어 넣은 쟁쟁하고 탱고의 열기가 복식에 있어서 단순성과 활동성을 부여하는 스타일로서의 정착에 영향을 주었다. 20년대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의 유행은 모든 사상 완전한 혁신 혹은 여자다움의 개념상에서 전면적인 혁명이었다<sup>24)</sup>. 허리와 가슴의 곡선미가 사라진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머리는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하게 매우 짧아졌다.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정도까지 짧아지게 되어 그 시대의 요구였던 자유로움과 활동성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길고 세련된 다리가 각광을 받았다. 복식의 전체 실루엣은 직선형으로 단순화되었고 평상복의 색상은 베이지·브라운·그레이·흑과 백의 색채를 주로 사용하여 침착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직물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대중적인 저어지, 니트, 그리고 트위드 등을 사용했다.

## IV. 시대정신과 복식조형성과의 상관성

### 1. 시대정신에 나타난 유사성

#### 1) 이성중시 사상

중세 미학은 고대철학과 미학을 비판적으로 섭취하여 기독교 사상과 융합·발전시켰다. 자연과 예술의 구상적인 미는 그것 자체는 불완전하며 그 근원을 이루는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미를 영원불변한 미로 본 견해에서 가시적인 미는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각으로 파악되는 거짓된 미”와 “이성으로 파악되는 참된 미”로 구분한 견해로 이어졌다.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전성시대에 오면서 이성과 본질

을 강조하는 기존의 관념에 종교적 색채와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sup>25)</sup>. 이러한 철학사상의 영향으로 고딕시대는 본질적으로 직관 및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고딕시대는 신 중심의 사고로 가득 차 정신적이며 영적인 가치가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시기였다<sup>26)</sup>. 중세의 지식인들은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또한 이성은 신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27)</sup>.

중세의 세계관에 나타났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경향은 모더니즘 양식이 추구했던 관념과 공통점을 가진다. 클레먼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모더니즘은 이성에 입각한 몰개성적·아폴로적 모더니즘을 의미한다고 했다<sup>28)</sup>. 아폴로적 모더니즘이란 로고스(logos)적인 것·지성·이성·평온·질서·객관적·형식주의·논리적·냉정한 사상·남성·과학·정신 등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하버마스(Harbermas)는 모더니즘이란 이성에 기반 하여 인간주체가 자기 바깥세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역사를 진보·발전시킨다는 객관성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계몽주의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양식으로서 문화와 인간의 삶을 접목시킬 가장 안정된 기반이라고 주장했다<sup>30)</sup>. 또한 그는 모더니즘 형성에 기초가 된 모더니티의 특성을 객관적 과학, 보편적 도덕과 법률, 그리고 자율적 예술로 보고 이들의 성취가 모더니즘적 사고관 및 미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언급했다<sup>31)</sup>. 이러한 객관성과 보편성은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모던시대에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로버트 피핀(Robert Pippin)도 모더니즘에 영향을 미친 모더니티의 특성에서 이성의 권위를 가장 우위에 두었다<sup>32)</sup>.

#### 2) 단일관념체제

11세기 이후 유럽사회의 정신적 질서를 지배하게 된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다. 기독교는 확고 부동한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면서 종합적이며 구심적인 사회체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유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힘에 의해 하나로 통합 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기독교적 명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 기독교에 의한 단일관념체계는 중세 말 유럽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중세 유럽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활동분야 즉 예술, 문학, 사상들을 논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0세기초 모더니즘의 기반은 새로운 생산방식인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방식에 적합한 모형의 창조에 있었다. 기계생산방식에 적합한 직선적이고 단순하며 장식이 배제된 딱딱한 조형물들은 20세기초 디자인 제품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완벽한 획일성과 객관성 그리고 보편적 질서 위에 형성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모더니즘은 우리 일상 삶의 다양한 형태가 집단적 제어를 통해 가장 행복하고 바람직한 단일하고 보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33)</sup>. 따라서 모더니즘 이론에 입각한 모던사회는 하나의 중심을 향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다양성을 무시한 보편성 확립을 중시했던 사회였다.

### 3) 특권계층의 시대

고딕시대는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 철학사상에 기초하여 형성된 비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이룬 시기였다. 이런 비민주적인 사회란 상단부만이 중요시되는 계급사회, 모든 생활이 교회와 영주의 자의에 맡겨지고 개인에게는 일체의 신분적, 지리 이동적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절대주의적, 초개인적 사회조직을 대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sup>34)</sup>. 따라서 이 시기는 정체적 보수적 세계관의 시기였으며 권위주의적 집단에 의해 무조건적인 복종의 원리에 입각하여 형성되어진 수직적 사회조직의 시대였다<sup>35)</sup>.

모던시대는 대중을 무시한 엘리트(Elite)계층의 시대이다. 모더니즘의 주역들은 엘리트였고 고급문화를 지향했다. 엘리트 계층의 모더니스트들은 사회경제적 억압 속에서 저급한 생활에 머물러 있는 대중을 계몽하고 높은 문화수준으로 각성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모더니즘은 예술의 세속화와 저속한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생겨난 양식이다. 모더니즘에 나타난 “특권계층의 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은 속물적 중산층으로부터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재나 전략이라고도 한다<sup>36)</sup>. 이러한 대중적이지 못한 작품을 소유하고 즐길 줄 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계층이 모던시대의 주인이었다.

## 2. 복식에 나타난 유사성

### 1) 인체에 대한 미의식

중세시대 기독교와 금욕주의적인 경향은 인체에 대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자연적인 인체의 곡선 즉 가슴, 허리, 엉덩이의 곡선을 강조하여 여성의 에로틱한 면을 부각시켰던 다른 시대와는 달리, 자연스런 인체의 곡선이 잘 나타나지 않는 마른 체형 [그림 1]을 선호하였으며 육체미의 형상을 철저히 근절시켰다. 그 시대 마른 체형은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축복 받은 자들의 가벼움으로 묘사되었고<sup>37)</sup> 이러한 종교적 이유와 함께 수평보다는 수직을, 넓이보다는 길이를 선호한 그 시대 예술양식의 경향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던시대에는 기능적인 모더니즘의 경향으로 대부분의 조형물이 직선적이며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20년대는 선천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신체를 타고난 사람에게는 불행한 시대였다. 이들은 당시의 소녀같이 납작한



[그림 1] Hugo Van Der Gues, 아담과이브 월드 아트 콜렉션 : 르네상스Ⅱ, p. 51.

이상적인 체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굵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한 버스트 바인드(Bust Binder) 라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는 속옷 [그림 2]을 사용하기도 하였다<sup>2)</sup>. 당시 여성들은 몸을 납작하게 하는 코르셋을 착용하여 허리와 가슴의 곡선미를 무시하고, 몸통을 평면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평면적인 체형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몸의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 빈약한 체형이 적합하였으므로 20년대는 마른 체형이 선호되었다. Cecil Beaton은 20



[그림 2] Rubber girdle and chin reducer, The Twenties in Vogue, p. 13



[그림 3] "The Morden Venus" by Cecil Beaton, The Twenties in Vogue, p. 13

년대 현대 미인(the modern venus)의 빈약한 체형을 풍자적으로 과장하여 [그림 3]과 같이 표현하였다.

2) 활동성이 부여된 기능적 복식

고딕 시대에는 종래의 정적인 생활이 상공업의 발달 등으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해 이동성과 활동성이 있는 생활형태로 바뀌면서 복식도 가급적 활동에 지장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형태를 추구하여 전 시대의 블리오와 같은 불합리한 의상형태는 사라지고 합리적이고 편리한 드레스 형태가 나타났다<sup>3)</sup>. 새로운 형식을 취한



[그림 4] Cotte, Italian breviary .C. 1380,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04



[그림 5] The labours of the months, 14C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00

겉옷은 꼬뜨인데 공식적인 자리 등이나 외출때에는 그 위에 쉬르코를 착용했다<sup>40)</sup>.

[그림 4]는 실루엣이나 형태면에서 과장이나 디테일 또는 트리밍에 의한 불합리한 면을 간소화시킨 단순한 디자인의 꼬뜨이다. [그림 5]는 평민계층이 착용한 꼬뜨로 직물의 무늬가 없이 단색의 단조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노동을 할 때는 치마를 약간 올려 허리에서 묶어 치마를 약간 짧게 하기도 했다.

제 1차 세계대전후의 여성패션은 움직임이고 행동하는 사회인으로서의 현실생활을 추구하는 기능주의적인 면보다 합리적인 미를 추구하려는 대중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스타일 창조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와 함께 그 당시의 예술양식 즉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태의 모던 스타일이 20년대의 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젊은 세대의 복장으로서 대표적인 만큼 당시 젊은이들의 재즈와 춤의 열광에 맞춰 스커트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이로 인해 더 큰 활동성이 복식에 부여되었다. [그림 6]는 샤넬의 "little black dress"로서 20년대 직선적이고 장식이 배제된 보이쉬 스타일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복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Chanel, little black dress, Le Temps Chanel, p. 19

### 3) 새로운 개념의 도입(전통과의 단절)

14세기는 여성복식과 남성복식의 차이가 확실하

게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남성의 복식이 역삼각형의 건장한 남성미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표현되는데 반해 여성의 복식은 호리호리하고 연약하게 휘는 듯한 몸매를 나타내는 스타일로 변해갔다<sup>41)</sup>. 이전시대와 다른 실루엣의 복식출현이 가능했던 이유는 새로운 재단법의 출현 때문이다. 13세기 중세 대표적 복식이었던 튜닉은 T자형의 평면재단을 기본으로 헐렁한 형태로 재단되었는데 비해 14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재단방법의 발명으로 소재를 여러 조각으로 재단하여 진동돌레를 곡선으로 만들고 단추나 끈을 이용하여 길을 몸에 조이게 하는 등 새로운 입체적인 실루엣의 창조를 가능하게 했다. 십자군 원정의 결과 군복이 발달하여 금속판 갑옷이 되면서 갑옷 속에 입을 상의는 신체의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 진동돌레와 허리가 들어가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입체구성의 의복이 개발되었다<sup>42)</sup>. 십자군원정의 영향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으로 카프탄풍의 단추 여밈 방법이 도입되어 중세유럽의 상의에 획기적인 발전을 초래하는 합리적인 재단법으로 발전된 것이다<sup>43)</sup>.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복식 구성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의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모던시대는 르네상스 이래로 허리를 조이고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여성 억압의 도구인 코르셋으로부터 여성들의 몸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볼륨 있는 풍만한 인체곡선을 나타내던 실루엣에서 탈피하여 미성숙한 소녀의 몸을 보여주는 듯한 직선적인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직선적인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하여 이전에 강조하던 가슴을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 바스트 바인드(Bust Binder)라는 이전의 코르셋과는 반대의 작용을 하는 코르셋을 착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고딕시대는 전통적 의복 구성방법인 T자형 재단에 의한 여유있는 의복형태가 새로운 재단방법에 의해 몸에 밀착된 새로운 실루엣의 출현을 가져왔고, 모던 시대에는 당시 유행복식의 실루엣에 따라 가슴, 허리, 엉덩이의 곡선을 감출 수 있는 이전시대의 실루엣과 코르셋의 기능과는 반대되는 실루엣과

코르셋이 출현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새로운 개념의 도입에 의한 전통과의 단절현상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지닌다.

4)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

고딕복식이나 모던복식에 나타난 엄격한 비례에 의한 전체적인 통일감과 조화를 중시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의복은 지적이고 엘리트적인 느낌의 고급취향을 표현하는 조형물들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이다. 자연스런 인체의 실루엣의 변형을 초래 할 수 있는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 등의 사용은 주로 저급하거나 대중적인 계급에서 볼 수 있는 인간 본능과 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천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두 시대 복식에 나타난 합리적 계획에 의한 순수한 기능성과 간결한 형태에 의한 단순성의 추구는 지배계층이 인간의 감정·정서·직관보다는 이성과 본질을 추구하는 엘리트적 성향을 가진 계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성과 본질에 기초한 신앙을 바탕으로 종교인들에 의해 사회가 통제되었던 고딕시대 복식과,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는 아폴로적 사고관에 근거하여 대중의 사교를 통제하였던 모던시대복식의 형태는 모두 단순하고 직선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고딕시대 나타난 직선적이며 단순한 형태의 귀족 복식을 나타내며, [그림 8]은 1925년에 나타난 직선적 실루엣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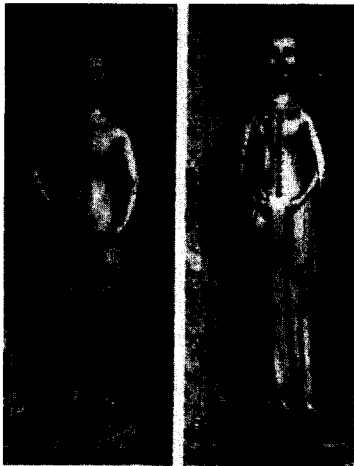
모던복식이다.

5) 장식배제 경향

고딕시대에는 귀족복식의 소재에 나타난 표면장식을 제외하고는 디테일 트리밍, 또는 보석류 등의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단순한 실루엣을 보여준다. 고딕시대 이전의 복식에 나타난 유연한 주름 선에 의해 입체의 볼륨이 감지되는 소



[그림 8] Dress designs as featured in Ladies'Home Journal in 1925, Vintage Fashion for Women 1920-1940s p. 62



[그림 7] 남녀의 Cotehardie 서양복식문화사,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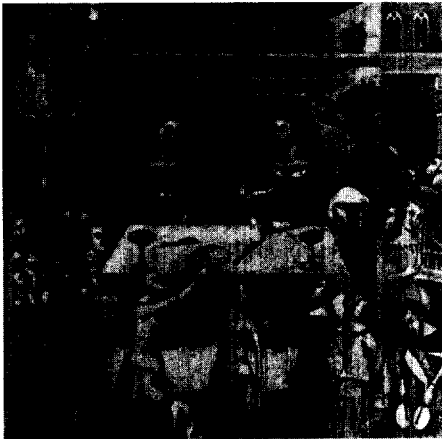


[그림 9] 꼬뜨위에 쉬르꼬를 착용한 모습 서양 복식사, p.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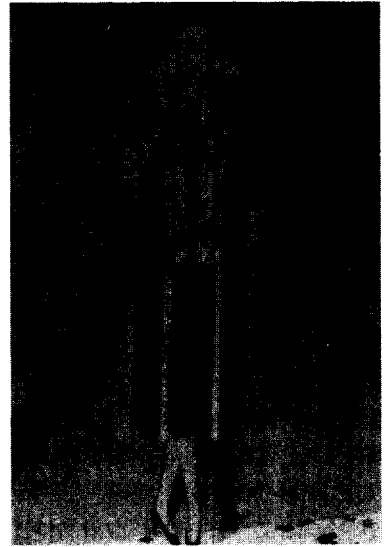


극적인 의미의 노출에서 고딕시대에 오면서 예술에서 보이는 구조의 단순성, 단아한 정신성이 의복에서는 비례나 단순함으로 나타났고 의복형태상의 변형이나 장식적 디테일보다는 의복의 선을 중요시하였다<sup>44)</sup>. [그림 10]은 꼬뜨 위에 쉬르꼬를 착용한 것으로 목둘레와 소매 끝, 그리고 벨트에 의해 나타난 선 등이 유일한 장식이다.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단순성 조화, 그리고 균형이 강조된 시기는 고전적 고딕시기인 13세기에 절정에 이르렀는데<sup>45)</sup>, 이런 형태는 꼬뜨나 꼬파르디의 슬림(Slim)한 라인의 트리밍

과 디테일이 절제된 단순한 의복스타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림 10]의 이탈리아 축제 장면에서 나타난 다양한 계층의 복식에서도 전체적으로 단순한 실루엣에 선이나 벨트에 의한 장식만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고딕후기로 가면서 르네상스적 기운이 싹트면서 장식적인 경향이 귀족들의 외의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10] 이탈리아 축제장면에 나타난 왕족과 평민의 복식, 서양의 복식문화, p. 149



[그림 11] 파두, 흑과 백의 조화 1923년, 파리모드 200년, p. 147

〈표 1〉 고딕·모던시대의 유사성

	유사성	시기	
		고딕시대	모던시대
시대정신	1. 이성중시 사상	이성과 본질에 기초한 신앙의 시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의 시대
	2. 단일관념체제	기독교적 사고관에 입각한 체제	모더니즘적 사고관에 입각한 체제
	3. 특권계층의 시대	성직자와 귀족	엘리트 계층
복식	1. 마른 체형 선호	길이중심의 예술양식 영향, 하늘나라에 살수 있는 인체의 가벼움 선호	사춘기 소녀 같은 미성숙한 인체선호
	2. 활동성이 부여된 기능적 복식	이동성과 활동성이 부여된 합리적 의복형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활동성 있는 복식의 필요성
	3. 새로운 개념의 도입 (전통과의 단절)	최초의 입체적 복식형태	여성인체 곡선을 무시하는 복식형태
	4.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	마른 체형에 어울리는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	미성숙한 체형에 적합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복식스타일
	5. 장식배제 경향	평면적인 직물의 문양과 선 장식을 제외한 디테일과 트리밍에 의한 장식배제 경향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장식배제 경향

모던시대에도 형태면에서는 직선적 실루엣을 선호하여 가급적 디테일이나 트리밍의 사용을 자제해 장식배제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식이 많은 옷보다는 단순한 스타일이 그 시대 생산방식과도 적합하였다. [그림 11]은 아주 단순한 직선적 실루엣의 모던복식 스타일에 선으로 장식을 한 단순한 형태의 복식이다.

## V. 결 론

한 시대의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인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조형물의 하나인 복식이 유사한 시대 상황하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딕과 모던시대의 시대정신과 복식을 비교·고찰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대정신에 나타난 유사성은

첫째, 고딕시대는 이성과 본질에 기초한 신앙을 중심으로, 모던시대에는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에 의해 사회가 통제되었던 이성중심의 사회

둘째, 고딕시대에는 기독교 교리, 모던시대에는 모더니즘적 이론과 사고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단일관념체제의 사회

셋째, 고딕시대에는 성직자와 귀족, 모던시대에는 엘리트계층이 사회를 주도하는 특권계층의 사회 등이다.

복식에 나타난 유사성은

첫째, 마른 체형을 선호한 인체에 대한 미의식

둘째, 전시대의 비활동적 의상형태에서 합리적이고 활동적이며 편리한 기능성이 있는 복식으로의 변화

셋째, 고딕시대 새로운 재단법에 의한 새로운 복식형태의 출현, 모던시대의 가슴·허리·영덩이를 평면적으로 보이도록 고안된 코르셋의 착용에 의한 실루엣 변화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에 의한 전통과의 단절 현상

넷째, 엄격한 비례에 의한 전체적인 통일감을 중시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의 복식 유행

다섯째, 고딕 모던시대 모두 단순한 선을 중시하

여 장식을 배제한 경향 등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이 전혀 다른 두 시대를 비교하여 시대정신과 복식에 나타난 상관성(유사성)을 밝힌 연구로서 각 시대별 시대정신에 나타난 공통적 특성은 그 시대 복식이라는 조형물에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Laver, James, *Fashion Makes Social History: In the House of Worth*, N.Y.: The Brooklyn Museum, 1962, p. 6.
- 2) Ewing, Elizabeth,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B.T. Batsford, 1978, 2-3.
- 3)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Merriam-Webster, 1981.
- 4) Clark, Kenneth, 누드의 미술사, 이재호 역, 열화당, 1988, 14-16.
- 5) *Ibid.*, 388-389.
- 6) 류기주·김민자,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한국의류학회지, 16(4), 1992, 357-369.
- 7) 기독교란 말은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s)에 의한 종교개혁이 있기까지는 주로 로마 카톨릭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중세사에서 기독교란 카톨릭 교회에 적용되어 쓰여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 8) 차하순, 서양사 총론, 탐구당, 1983, p. 194.
- 9) *Ibid.*
- 10) Clark, Kenneth, op. cit., 388-389.
- 11) Fuchs, Eduard, 풍속의 역사Ⅱ; 르네상스, op. cit., 23-25.
- 12) Scott, Margaret, *The History of Dress Series: Late Gothic Europe 1400-1500*, Humanities Press, 1980, p. 40.
- 13) Clark, K, op. cit., 388-390.
- 14) Scott, M, op. cit., p. 47.
- 15)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6, 119-120.
- 16) *Ibid.*

- 17)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 141.
- 18) Ibid., p. 145.
- 19)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4, p. 48.
- 20) Ibid.
- 21) 김성기,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 17
- 22)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2, p. 108
- 23) 이미숙,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8, 88-90.
- 24) 허준, Paris Mode 200 Years, 유럽문화사, 1992 p. 140.
- 25) Burns, 서양문명의 역사II, 박상익 역, 소나무, 1994, p. 421.
- 26) Ibid.
- 27) Frischauer, Paul, 세계풍속사 下, 이윤기 역, 까치, 1991, p. 14.
- 28) Greenberg, Clement, op. cit., pp. 171-175.
- 29) Nietzsche, F., 비극의 탄생, 김대경 역, 청하, 1982, 37-42
- 30) Harbermas, J., Modernity-An Incomplete Project, pp. 160-169, reprinted in Postmodernism, ed by P. Wanhg, London : Edward Arnold, 1992.
- 31) Ibid.
- 32) Pippin, Robert, Modernism as Philosophical Problem : On the Dissatisfactions of European High Culture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1, 4-5.
- 33)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1997, p. 120.
- 34) Hauser, Arnold, 고대 중세편, 백낙청·심성완 역, 창작과 비평사, 1988, p. 266.
- 35) Ibid.
- 36) 김옥동, op cit, 225-226.
- 37) Scott, M, op.cit., p. 47
- 38) Hall, C & Swanson, G, The Twenties in Vogue, Harmony Books, 1983, p. 13.
- 39) 정홍숙, op cit, p. 145
- 40) 丹野郁·原田二郎, 서양복식사, 이희현 역, 경춘사, 1984, p. 74
- 41) 라사라 편집실, 패션의 역사, 라사라, 1992, p. 136
- 42) 이정옥·최영옥·최경순,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p. 138
- 43) 丹野郁·原田二郎, op. cit., p. 84
- 44) Russel, D. A,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p. 128, 김태연, 김민자 논문에서 재인용
- 45) Ibid., p. 130.